

“UAE, 한국에 37조 투자...우주 등 미래산업 전략적 파트너”

한-UAE 정상회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자리에서 아랍에미리트(UAE)는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한화 약 37조260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투자 결정은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졌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여 수도 아부다비의 대통령궁인 ‘카사르 알 와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단독회담 순으로 진행됐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격상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UAE 측은 정상회담에 앞서 20여 분간 공식 환

영식으로 윤 대통령을 예우했다.

한국 정상이 의전상 최고 예우를 받는 국빈 방문 형식으로 UAE를 찾은 것은 1980년 양국 수교 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김은혜 홍보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양국은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를 계기로 독보적인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오늘 회담을 계기로 현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관계를 도약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의 개인적 인연으로도 취임 날짜도 작년 5월로 비슷하고, 연배도 비슷하다”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에 새로운 리더십이 더욱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앞으로 한-UAE 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UAE 정상회담에 앞서 현지 최대 아랍어 일간지인 ‘알 이티하드’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IT(정보기술), 미래의 신산업, 보건 의료를 비롯해 인적교류를 통한 문화적 교류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질 미래지향적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UAE는 글로벌 대표 산유국으로, 중동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정정에너지 중심의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사열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및 기후 행동 강화 분야까지 우리 양국의 우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의 지속가능한 녹색도시인 마스라르 시티를 건설하고 운영해 온 UAE의 경험과 한국의 세계적인 IT, 녹색기술, 인프라 건설이 결합한다면 양국은 스마트 시티 세계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5대 원유 수입국 중 하나”라며 “우리 원유 수입의 50% 이상을 걸프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022년 한국 건설 기업들의 해외 매출액 중 약 30%가 중동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뛰어난 기술발전 및 걸프 지역의 프로젝트 수행으로 쌓아온 축적된 노하우와 걸프 국가와의 공통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양국은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특히 UAE는 바라카 원전 건설 이후로 우주, 보건·의료, 스마트팜, 수소와 같은 미래 산업에 있어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핵심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제2 진박감별사” vs “羅홀로 집에” 나경원-친윤 갈등 격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 (친윤석열) 진영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나 전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을 동시에 해임한 것을 계기로 당내 친윤계는 나 전 의원을 향해 ‘제2의 유승민’, ‘반윤(반윤석열) 우두머리’ 등 격한 비난을 쏟아냈다.

친윤 진영이 손잡은 김기현 의원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여론조사 선두권인 나 전 의원 ‘찍어내기’에 나선 모양새다.

나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지 않고 있다.

반면, 당내 친윤계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격하면서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나 전 의원은 15일 오전 지역구인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미사를 보며 출마 결심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그러나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나. 2016년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적었

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총선에서 당내 진박(진박근혜)계가 ‘진박(진실한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비박(비박근혜)계와의 갈등으로 ‘공천파동’을 일으키고, 결국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총선에서 패배했던 일을 거론한 것이다.

현재 주류인 친윤계를 박근혜 정부 당시 진박계에 비유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도 공천을 둘러싼 친윤계 주도의 공천 갈등이 있을 것이라 뜻으로 풀이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나 전 의원에 대해 “당내 몇 안 되는 장수 중 한 사람”이라며 “몇몇 인사들의 나경원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은 지나친 감을 준다. 과연 그가 그렇게 비난받을 일을 했는가”라고 방어막을 쳤다.

이에 대해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제2 진박감별사’가 될 생각이 결코 없으니 나 전 의원의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길 바란다”며 나 전 의원을 직격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든 없든지 간에 ‘꼭 내가 당 대표가 되어서 골을 넣어야겠다’, ‘스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고 꼬아붙였다.

당내 최대 친윤의원 모임인 국민공감 소속의 박

수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화 ‘나홀로 집에’의 아역 주인공과 나 전 의원의 얼굴을 나열한 뒤 ‘羅(나경원)홀로 집에!’라는 자막을 단 사진을 게시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나 전 의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아래 사진처럼 희화화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자기를 버렸다면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압

박했다.

나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검증 과정에서 흠결이 있어 장관직 등으로 입각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친윤계 의원들과 가까운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은 지난 13일 저녁 KBS 라디오에 출연해 “외교부·보건복지부(정관) 등 여러 자리에야 이야기가 있었고, 구체적인 진행 절차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왜 장관이 못됐는지 그 이유를 본인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안철수 “진박감별사’ 행태 우리가 망하는 길”

국민의힘 당권주자 안철수 의원은 15일 “진박 감별사’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행태가 이번 선거에 재현되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수진 의원이 주최한 양천갑 당원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번(2016년 총선)에 그것 때문에 이길 뻔한 선거를 졌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박(진박) 감별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총선에서 당시 진박(진박근혜) 핵심 인사들의 주도로 이뤄졌던 공천 파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최근에는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

등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가자, 나 전 의원이 SNS에 “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안 의원은 앞서 SNS에서도 “누구나 참여하는 아름다운 경쟁이 아니라 특정인을 향한 위험한 배타력이 난무한다”며 “전당대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당에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분열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연말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30%대 중후반대를 기록해 왔다.

긍정 평가 이유는 ‘공정·정의·원칙’,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9%), ‘국방·안보’(8%), ‘노조 대응’(7%), ‘결단력·추진력·독심’(6%), ‘부동산 정책’, ‘전 정권 극복’, ‘변화·쇄신’(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2%), ‘경제·민생 실피지 않음’, ‘소통 미흡’(이상 10%), ‘독단적·일방적’(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통합·협치 부족’(5%), ‘국방·안보’, ‘공정하지 않음’, ‘인사(人事)’, ‘서민 정책·복지’(이상 3%)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윤달 이장 하실 분
- 별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상담문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